

# 군산시, '온온투어' 추진

### 탈 블루코로나프로젝트... 新 국제교류 협력 강화 4개국 17개 자매우호도시 다양한 매력 영상 송출

군산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첫 걸음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군산시와 4개국 17개 자매우호도시가 함께 탈(脫)블루코로나프로젝트 '온온투어 : 안방외 랜선여행'을 준비했다.

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1일 제8회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군산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미국, 중국, 캐나다 9개도시 기관장이 보내온 축하영상과 4개국 17개 자매우호도시의 홍보영상, 사진 등을 한 데 모아 10월 한 달 동안 군산시 국제교류 SNS계정을 통해 게재했다.

온 위문사한문 등으로 고통을 함께한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온온투어에 사용된 영상은 시청 1층 군산국제자매우호도시관 브라운관에서 송출해 군산시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온온투어는 코로나19시대를 함께 견뎌 나가기에는 따뜻한 이웃 간의 온정(溫情)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온택트 교류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 중국 우호도시에서 보내 온 마스크 6만장과 여러 자매우호도시에서 건네

/군산=한영봉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4일 농업중앙회전북본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여했다.

## 정현을 익산시장, 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호평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4일 농업중앙회전북본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과 농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R&D기술 농식품 기업의 투자, 스마트·친환경 농가와 융합된 새로운 상생모델 구축으로 익산 100년 먹거리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정현을 시장은 귀농귀촌·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수도권 귀농귀촌을 운영해 447세대 도시민 688명을 유치하고 체재형 가족살습 농장 운영, 임대농기계 임차료 지원 청년농의 영농 정착지원, 신기술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역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업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농업기반 조성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2017년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및 2019년 '농업회의소' 창립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2017년 농업인 월급제, 2020년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을 시행했다. 더불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43억원을 농수로 배수개선사업 등에 투입하는 등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집중해, 벼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재검받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박성일 본부장은 "정현을 시장님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농업·농촌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과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앞으로도 도농융합 및 농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 주택건설 관계사 지역경제 활성화 '손잡다'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관계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관계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주)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 페이퍼코리아(주)대표 권육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지회 군산지회(회장 박상배)와 시가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에서 시공 중인 주택건설사업 관계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실시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지역자재 80%이상 사용,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하고, 저소득층 주거인정지원 등 지역상생 방안 협력, 군산지역에서 임직원 동아리활동 및 가족여행 등 후생복지지원, 입찰 담합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사 수주 등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농촌빈집재생사업 완료

익산시가 농촌 빈집을 단정해 주거 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귀농·귀촌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4일 농촌지역 빈집을 단정하여 주거 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농촌빈집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빈집 증가에 따른 청소년 탈선과 경관 훼손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와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삼기면 등 농촌지역에 5동을 추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했다. 농촌지역의 빈집과 공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증대와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 서동마,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출시

### 백제 무왕의역사적배경 간직 기능성가공제품 상품화박차



익산 농업기술센터는 마젤리움 등 6종 시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올 연말 금마 농협에서 마분말 제품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동마 가공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시는 서동마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역사적 배경을 간직한 서동마를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상품화해 지역적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마의 기능성을 살린 가공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센터는 마젤리움, 마빵, 마누통지, 마분말, 마아제간편죽 등 6종 시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올 연말 금마 농협에서 마분말 제품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마빵 등 서동마 가공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는 서동마 가공품 상품화를 위해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체를 방목해 마의 영양적 기능과 가공적성을 설명

하며 가공품 개발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업체별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백제 무왕 어린 시절과 신라 선화공주와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동마에 소 개된 서동마는 단마로 소화불량,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어 주요한 한방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익산에서 2000년대 초반에 20ha까지 서동마가 재배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서동마 재배지 심토반전과 기자재를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익산 서동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민·관 함께 군산항 활성화 방안 논의

군산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4일 리츠포자호텔에서 군산항 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등과 함께 군산항 상생발전 협조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일준 군산시장,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 항만유관기관, 항만관련단체, 하역사, 선사, 포워더 등 22개 기관·단체·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해, 평소 군산항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 이후 경기둔화와 물동량 감소 등 정체된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군산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며, 취약한 항만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단, 콜로키움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연계연구단은 제16차 콜로키움을 5일 교내 송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HK+사업단 의제인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아이다이멘션(North-East Asia Dimension)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된 가운데 동북아시아 국가 간 유대의 근원을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베트남 유이언 대학 김재희 교수(사진)의 '유리사아 곱 신뢰와 용녀의 강령' 발표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신뢰의 유사성은 물

론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고대 지리적·경제적 유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재희 교수는 서강대에서 생물학과 목문학 독일 보훔(Bochum)에서 언어학과 인공지능,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민속학과 인류학 등 한국 문화를 전공한 연구자로 현재는 베트남 유이언 대학 한국어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